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가정의례

禮法事典

朱月榮 지음

전통적인 혼례·상례·제례는 물론 성묘·세배·백일·똥·명절놀이 등의 연중행사에 관해서도 살폈다. 우리나라 예법의 기본자세와 전통적인 인사법 및 호칭, 그리고 남녀 한복 입는 법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예법에 관한 모든 것을 수록한 사전으로서의 몫을 다하고 있는 책.

修學社/A5신/294면/5000원

冠婚喪祭

崔佛壽 지음

각종 의례의 유래와 변천, 절차와 의식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특히 현대생활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기독교·천주교·불교식의 의례들도 소개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했다. 관례·제례·혼례에서부터 궁합·명당자리 보는 법·친척관계 계촌도에 이르기까지 관련 사항을 모두 수록했다.

태서출판사/B5/350면/5000원

家庭寶鑑

조양재 엮음

각종 의례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살피는 한편, 세부적인 절차와 이에 필요한 각종 서식 쓰는 방법을 쉽게 풀이한 안내서. 시장에 가정의례준칙의 조항을 수록했고, 혼례법절·상례·제례·壽宴 순으로 살폈다.

一信書齋公社/A5신/304면/2800원

冠婚喪祭禮

韓重洙 엮음

관례·혼례·상례·제례의 절차를 소개하고, 특히 현대적 감각에 맞는 의례의 실행에 역점을 두어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에 따르면서도 간소하고 실용적인 혼례예식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明文堂/A5신/356면/3500원

관혼상제

혜원편집실 엮음

조상들이 지켜왔던 관혼상제의 의례와 오

늘날 현대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바람직한 예의를 함께 소개했으며, 특히 한문으로 된 각종 의식의 축문·제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해설했다.

혜원출판사/B5/248면/3000원

新舊冠婚喪祭

편집부 엮음

관례, 혼례, 상례, 제례법절의 유래와 그 깊은 뜻을 살펴보고, 그 종류와 절차를 세부적으로 소개했다. 수연의 종류와 각종 잔치상 차리는 법은 물론, 친정부모·외조부·외조모·빙부·빙모제문 등을 수록했다.

三榮文化社/B5/188면/3000원

新舊 家禮·書式大典

편집부 엮음

제례·혼례·상례법절·헌수가장례의 절차를 다뤘고, 지방·축문 쓰는 법, 혼인 청첩장 및 수연 청첩장 쓰는 법, 부고 및 부의금 서식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민성사/B5/128면/2300원

冠婚喪祭 家禮書式百科

편집부 엮음

혼례·제례·상례의 의미와 절차를 상세히 살피는 한편, 사돈지 쓰는 법에서부터 한문·한글 지방 쓰는 법, 부고 쓰는 법, 각종 축문의 서식에 이르기까지 관혼상제 의식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일목요연하게 풀이했다.

眞話堂/B5/128면/2000원

家庭寶鑑

李洪源 지음

혼례의 각종 절차와 상차리기, 床需와 사돈지·단자·혼인청첩장 쓰기 등을 살폈고 상례의 순서 조문·만장·부고장 쓰기를 안내했다. 관혼상제의 예법을 각각 재래식과 현대식으로 나누어 살핀 것이 특징이며, 임신·출산·육아·약용주 담그는 법에 이르기까지 현대 가정생활에서 필요한 지식을 망라했다.

은광사/A5신/298면/3000원

사진으로 보는 家庭儀禮

가정의례의 의미와 변천과정을 살피는 한편, 의식절차에서부터 상차림에 이르기까지

를 누구나 쉽게 이해하여 따를 수 있도록 컬러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혼례·회갑·喪禮·祭禮의 세부사항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朝鮮日報社/B5/222면/2200원

茶생활

茶經

李圭正 편역

茶道·茶書의 경전으로 불리는 陸羽의 「茶經」을 번역 소개한 책. 차의 기원과 제조, 차 끓이는 법과 마시는 법, 차의 역사 등의 내용이 실렸다. 송나라 휘종황제의 저서인 「大觀茶論」도 번역하여 중국 차문화의 여러가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부록으로 우리나라 차의 성분을 비교함으로써 차의 효능을 설명하고 있다.

백양출판사/A5변형/198면/2500원

韓國의 茶道

崔凡述 지음

현대인의 취미와 기호는 내면 깊숙이 서려 있는 이상에 대한 생활의 반영이라고 한다. 저자는 차생활이란 인간생활의 진정함을 목표로 하고, 불교에서의 불보살과 통하는 것으로 본다. 차생활의 사적 고찰과 차생활의 실재를 통해서 茶禮의 미풍양속 계승을 권유하고 있다.

寶蓮閣/B6변형/308면/4000원

茶道

釋性愚 지음

「茶經」이란 책을 낸 바 있는 저자가 차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차의 역사와 차의 분포 등과 함께 살피고 있다. 달마대사 이야기, 절강설 전설, 神異記 전설 등 차에 얽힌 이야기와, 차에 대한 칭송을 노래했던 지장법사, 李仁老, 徐敬德 등의 시를 함께 담았다.

白羊出版社/A5변형/258면/4000원

저널리스트의 눈에 비친 茶道熱風

李起潤 편저

월간 「茶苑」을 편집하면서 얻은 저자의 체험과 취재를 통해서 엮은 차에 관한 글모음.

인류가 애용하는 기호품들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茶의 전통文化를 살피고 있다. 가야로부터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茶에 얽힌 이야기와 현대생활 속에 사라져가는 茶道에 관해 뿌리를 캐고 있다.

보림사/B5변형/92면/3000원

茶道學

金明培 지음

茶道에 입문하려는 초심자에게 전통 다도의 개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설서. 차의 식물학에서 차나무의 원산지, 종류, 성분 등을 조사하고, 차의 전파와 차文化의 변천, 다도의 원리, 한국 다도의 역사를 두루 개괄하고 있다.

學文社/A5변형/458면/6500원

韓國茶藝

석용운 지음

사람들이 차를 즐겨 마시는 이유는, 건강에 이롭고 사색공간을 넓혀주며 예의롭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차생활에 대한 일반을 소개하고 있다. 물의 선택법, 불의 조절, 차의 보관법 등과 함께 현대인에게 편리한 행다법을 사진을 곁들여 설명한다.

保林社/B5변형/238면/5800원

中國의 茶道

金明培 역저

한국의 다도는 중국의 차문화를 모방, 재구성하여 독자적인 것으로 소화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한국의 다도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알기 위해 중국 차문화의 역사와 煎茶水記, 당포, 茶譜, 茶錄 등을 소개하였다.

明文堂/A5신/334면/3900원

韓國의 茶詩鑑賞

金明培 지음

신라시대 지장법사로부터 현대 시인에 이르기까지 '차'를 읊은 200여수의 시가와 시조, 민요 등을 수록했다. 차에 관한 노동요를 비롯 사대부·평민·창기의 茶詩와 차겨루기, 品茶·品泉을 읊은 시도 있다.

大光文化社/A5변형/392면/6000원

◇이번 호부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 도서들을 주제별·類書別로 소개합니다.